

# 2026 스토리텔링 공모전 1차 심사 통과작

제 목	그림자 단짝, 근로지원인과 다시 선 교단
<p>색깔을 몽땅 도둑맞았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p> <p>그날은 비상구 불빛조차 모두 꺼져 버린 날이었다. 그해 긴 겨울의 끝자락, 안압을 낮추는 수술이 예고 없는 불가항력 사고로 이어졌다. 모든 세상이 암전되면 이런 느낌일까? 모든 수술과 치료의 과정이 끝난 뒤, 의사는 건조하게 말했다.</p> <p>“현대 의학으로는 더 이상 시력 회복은 어렵습니다.”</p> <p>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시신경을 되살리는 건 현대 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허공을 때렸다. 뇌파를 이용해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기술이 연구 중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p> <p>화면은 꺼지고 소리만 남은 드라마가 내 앞에서 재생되고 있었다. 의사의 몇 마디가 더 이어졌지만 나는 다른 생각을 쫓아가고 있었다. 방학식 날 귀찮아서 정리하지 못한 내 책상 위 잡동사니들이 떠올랐고, 혹시나 아이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안내장이 있는지 교실 여기 저기를 빠르게 훑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언젠가 내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 서 있을 단짝을 만나게 될 줄은.</p> <p>성인이 된 뒤에도 녹내장이라는 안질환은 나를 따라다녔다. 다만 안약과 간단한 시술로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휴일이면 남편과 자전거로 강변을 달렸고, 하루를 마무리 짓는 노을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삶의 낙이었다.</p> <p>이제 더는 할 수 없다는 말이 허공을 메웠다. 무엇보다 천직으로 여기던 교직생활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불가항력이라는 불청객은 나의 모든 반짝임을 집어삼킨 듯했다.</p> <p>나는 학교에 휴직을 신청했다. 가족들은 종종 시각장애인이 된 내가 새로운 세상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재활 과정을 찾아냈다. 나는 복직을 목표로 새로운 배움 길에 올랐다. 사실은 남편의 손에 이끌려 반강제로 보내졌다는 말이 맞겠다.</p> <p>재활을 위해 문을 두드린 곳은 후천적으로 빛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점자, 흰 지팡이 보행, 컴퓨터 사용 등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능을 배우는 곳이었다. 더는 전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직업재활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p> <p>계절은 부지런히 흘러 복직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나를 세웠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를 가지고도 자기 몫을 해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타 지역에서 장애인 교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 문을 두드렸다.</p>	

맑은 하늘만 믿고 걷다 보면 아무런 예고 없이 소나기를 만날 때가 있다. 그런 날은 그저 흠뻑 젖은 채로 이 비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걱정하고 퍼붓는 비를 무슨 수로 피할 수 있었겠는가? 피할 수 없어서, 그대로 다 젖어야만 끝나는 그런 날. 왈칵 다 쏟아내고, 퍼부어야만 지나가는 인생의 소나기가 있다.

그 소나기 끝에서 나는 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제도를 만났다. 근로지원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 속에서 자신의 직무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동과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지원인 선생님의 안내 보행에 따라 다시 교실 문을 열던 그날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하다.

학교에서는 우리를 단짝이라고 부른다. 근로지원인 선생님은 내 곁에서 교실을 함께 읽어 주는 사람이었다. 교실의 시각적 상황과 학생들의 움직임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며, 내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덕분에 나는 학생 반응을 놓치지 않고 수업의 흐름을 이어 갈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원만하게 지원되는 비결이다.

수업 중이었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고개를 숙인 채 표정을 찡그리고 있다는 말이 낮게 전해졌다. 나는 걸음을 옮겨 그 학생 곁에 섰다. 손을 얹자 미세하게 떨리는 어깨가 느껴졌다. 빠르게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보지 못하는 교사가 아니라 더 세심하게 발견하는 교사가 되어 있었다. 누군가의 눈을 통해 들어온 교실의 장면이 내 수업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었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때로는 과하게 올라간 배려와 지원의 온도를 낮추고, 두 사람의 걸음의 보폭을 맞추어 갔다. 장애 교원과 근로지원인의 협업이 낫설었던 학교에서도 시간이 흐르며 우리의 존재는 어느덧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다.

복직 후 보람 있는 순간들이 참 많았다. 그중에서 학생들과 소통했던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나는 특수교사로서 매년 장애이해교육을 진행한다. 각 반으로 찾아가 비장애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던 중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삶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를 덮치기도 해요. 하지만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기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길이 끊어진 것 같은 길 위에서 찾은 희망이 학생들에게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을 요청할 좋은 어른과 이웃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다. 직접 겪은 이야기라 그런지 목소리는 강하고 단단했다. 그 후 고용공단에서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를 학생들에게 시연했다. 시각장애인의 업무와 생활을 돕는 보조공학기기가 내 손에 들려 있었다. 음성출력장치를 통해 능숙하게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데 학생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근로지원인 제도를 통해 시각장애를 가지고도 다시 교단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야기가 이어졌다. 숨소리조차 고요해진 교실 속에서 학생들이 몰입해서 내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날 교실에서는 삶이 전달되고 있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살아 있는 장애 인식의 장면이 되는 순간이었다.

돌이켜보면 사고는 내 의지가 아니었다. 다만 무너진 자리에서 삶을 다시 세워 나가는 것은 내 의지였고, 동시에 나를 홀로 두지 않았던 사회의 온기였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내가 직업인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내밀어 준 손이었다. 나는 다정한 그 손을 잡고 다시 교실로 돌아왔다.

올해는 학교를 이동해야만 했다. 장애인 교원이라고 인사이드에 예외일리 없었다. 정든 학교를 떠나며 인사를 나누던 중 교장선생님의 한 마디가 잊히지 않는다.

“ 선생님의 존재가 그동안 비장애인 학생과 교사들에게 큰 의미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식개선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예고 없이 쏟아진 소나기 속에서 내가 붙잡은 건 다시 일어설 용기와 희망이었다. 다시 그린 내 하루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어제를 껴안는 대신 그림에도 살아볼 용기가 되어 내일을 향해 담담한 걸음을 내딛게 했다. 나에게 삶은 극복해 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오롯이 살아내는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어둠도 교단 앞에서 내 존재를 밝히는 빛까지 빼앗아 가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내 자리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로 존재한다. 다만 이제는 내 그림자 단짝과 함께.

나는 오늘도 또각또각 작은 빛을 찍으며 뚜벅뚜벅 내 몫의 하루를 이어 나간다.